

중외제약 미소 유한양행 올상

1999년 1-6월 제약기업 매출이 판매가격표시제도(RPLS) 도입 및 병원의 의료보험 약값 인하를 겨냥한 입찰지연에 따라 영향받은 것으로 나타났다.

주요 제약기업 영업실적(1999.1-6)		
구 분	매출액	신장률
동아제약	1 713억원	16.0%
종근당	*1 606	26.0
녹십자	1 115	3.7
유한양행	930	▽4.8
중외제약	918	24.6
대웅제약	738	8.8
한미약품	583	▽4.0
한독약품	567	3.4

* 340억원은아파트분양대금

동아제약은 중소기업의 수출 대항금액 증가 및 인공관절 판매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 증대로 16% 증가한 1713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.

반면, 유한양행은 수출이 크게 줄어 매출이 1998년 동기보다 4.8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 수출감소는 중국에 판매하는 항생제 원료 수출이 대폭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.

종근당은 RPLS로 자황, 속청 등 일반의약품 판매가 증가했고, 순환기계 치료제 등 병원약품 매출도 호조를 보였다. 수출은 원화기준으로 19%정도 감소했다.

녹십자는 수출과 병원부문이 각각 소폭 신장해 전체 매출은 3.7% 증가한 1115억원을 기록했고,中外제약은 매출

이 24.6% 증가한 918억원을 기록했다.

RPLS는 대체로 유명약품 가격을 끌어올려 매출증대효과를 가져왔지만, 병원들의 입찰 늦추기는 전문치료제 매출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.

<화학저널 1999/7/26>